

시민참여 에너지전환 플랫폼 문 연다

‘광산구에너지센터’ 오늘 개소...민관 거버넌스 중간지원 거점 시민교육·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 에너지 공동체 주도”

광주 광산구가 지역 최초로 에너지전환과 탄소 중립을 주도할 시민 참여 플랫폼을 운영한다.

광산구는 27일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 거점 플랫폼인 ‘광산구에너지센터’ 개소식을 한다고 밝혔다.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시범사업’ 공모 선정 이후 2년 만의 결실이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추진된 에너지센터 사업은 센터 공간 확보,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추가 예산 부담 등으로 한때 어려움을 겪었지만,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전환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역 시민, 환경단체, 주민 등의 요구와 건의를 수용해 에너지센터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광산구는 설명했다.

특히 다양한 시민 의견을 모아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산구의회,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정 TF팀을 구성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설립 기본 방

향부터 센터 운영 방식, 인력 및 예산까지 전반에 걸친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설립된 광산구에너지센터는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 1층에 동지를 틀게 됐으며,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로 입지를 다진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한다. 센터장을 포함한 3명의 인력이 상주한다.

광산구는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와 시비 2억 원에 자체 예산 2억 원을 더해 총 4억 원의 사업 및 운영 예산을 지원한다. 광산구에너지센터는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시민 의식을 제고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한다.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시민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시민 실천과 공감대를 확산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광산구, 지역 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는 물론 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 구성원을 엮은 ‘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성해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역 사회의 역량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광산구에너지센터는 또 지역에너지 정책의 중심고리로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주도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에너지계획, 에너지사업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산재된 각종 ‘에너지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광산구에 밀집한 산업단지 업체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진단 서비스를 통한 에너지 절약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도 추진한다.

광산구가 2020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의 확산을 비롯한 새로운 에너지 분야 정부 사업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산구에너지센터는 시민의 능동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공동체를 끌어갈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하는 혁신적인 에너지전환 플랫폼 모델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돌봄 필요땐 돌봄콜...골목 누비는 자전거 홍보단 광산구 통합돌봄 이색 홍보 ‘눈길’...SNS·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광주 광산구 풀뿌리 자치 현장에서 ‘광주+ 광산형 통합돌봄’ 사업에 힘을 보태기 위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홍보 활동이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다.

첨단1동에는 ‘통돌의민족’ 자전거 홍보단이 등장했다. 온라인 배달앱 명칭을 본 따 많은 시민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골목이 좁고, 차량 주차가 어려운 지역 특성, 또 탄소중립 실천 등을 고려해 자전거를 활용해 보자는 아이디어가 출발점이 됐다. 홍보단은 첨단1동 직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 위원으로 구성됐다.

자신의 자전거에 ‘통돌의민족’ 문구와 ‘통합돌봄콜(1660-2642)’ 연락처를 표기한 깃발을 달고, 출장이나 외부 이동 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다 함께 자전거를 타고 상가, 골목 등을 누비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첨단1동 관계자는 “평소 업무를 보기 위해 돌아다닐 때도 통합돌봄을 알리고자 일부러 자전거를

타며 ‘통새’ 홍보를 하고 있다”며 “시민들 반응도 좋아 앞으로 더 많은 직원, 지사협 위원으로 확대도 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월곡2동에서는 관내 종합사회복지관과 협업해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를 운영하며 통합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 수완동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한 통합돌봄 홍보를 진행 중이다.

통장회의, 지사협 회의 등에서 각 동 복지매니저와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찾고, 통합돌봄 서비스로 연결하는 시도도 활발하다.

실제 우산동은 이러한 경로로 국가유공자 보상금으로 인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을 발굴, 통합돌봄 서비스를 통한 가사 및 식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특색 있는 홍보를 통해 긴급한 위기에 처한 시민은 물론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광주+ 광산형 통합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주민 손으로 ‘꽃피는 명품길’ 조성

명품 30리길 서봉친수지구 구간에 덩싸리 식재

광주 광산구는 “지난 24일 지역주민과 함께 민선 8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명품 30리길 사업의 ‘꽃피는 서봉친수지구’ 거점 구간에 덩싸리를 식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식재 행사에서는 어룡동 주민 80여 명이 참여해 서봉친수지구 약 2km(5리) 구간에 덩싸리를 식재했다. 덩싸리는 ‘일년초’로 초여름에는 초록색을 띠다 가을에는 붉은색으로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계절에 따라 다른 색상으로

물드는 명품길 풍경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송산근린공원부터 황룡강 장륙습지, 영산강과 황룡강이 만나는 동곡 두물머리까지 약 12km(30리)를 걷기 좋고, 찾고 싶은 ‘명품길’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산근린공원부터 호남대학교까지 이어지는 상류 구간은 아름다운 생태 자연환경 속에서 시민이 휴식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물억새, 초화류가 가득한 특화 공간으로 가꿀 계획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



‘광산, 서원 아카데미’ 한국 유학 근본을 만나다

5~6월 매주 수요일...강연·강학회·음악회·답사 등

광주 광산구가 한국 유학의 근본을 만나는 ‘광산, 서원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올해는 깊이 있는 강연과 강학회로 배움의 길을 열고, 답사와 공연으로 즐거움을 더하는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만날 예정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인문 문화자원인 월봉서원에서는 ▲저자와 함께하는 한 권의 책 ‘서원 아카데미’ ▲옛 선비들의 공부 모임을 재현하는 ‘서원 강학회’ ▲음악으로 세상을 잇는 ‘서원 음악회’를 운영한다.

‘서원 아카데미’는 주자에서 조광조, 서경덕, 이황, 고봉 기대승에 이르는 한국 유학의 토대와 깊

이를 학습하고 매주 한 권의 책을 탐독하며 저자의 직감을 제공한다. 5월부터 6월 두 달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10분까지 열린다.

‘서원 강학회-Reading(리딩, 읽기) 고봉’은 옛 서원에서 열린 공부 모임을 재현한다. 이번 강학회에서는 고봉 기대승 문집을 함께 읽고 토론한다. 6월 10일, 9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오전 공부인 조강과 오후 공부인 주강을 연달아 진행한다.

‘서원 음악회’는 서원 아카데미, 서원 강학회와 연계한 성악 앙상블과 아쟁, 첼로를 비롯한 기악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특히 고봉 기대승의 시를 소재로 한 창작 가곡 공연을 선보인다. 인문학과 예술을 아우르는 ‘협업 지역학’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한국의 전통 인문 문화자원을 답사하는 세월, 발걸음으로 잇다 ‘서원 답사’ 프로그램은 장흥 일대를 찾아 떠난다.

녹음이 우겨진 5월 20일(토) 최초의 기행 가사 관서별곡의 저자 기봉 백광홍이 배향된 기양사, 예양서원, 위백구 선생 기념 공원, 구산선문의 종찰 보림사 등을 둘러본다. 이번 답사는 유교와 불교문화가 공존하는 호남학의 특이성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참가비는 2만 원이다. 답사 프로그램은 강의 자료와 함께 점심을 제공하며 회당 25명 선착순 모집한다. ‘광산, 서원 아카데미’는 광산구가 주최하고 ‘기술하다’가 주관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특색 넘치는 명소...광산구 홍보 영상 공모전

주제·형식 자유...6월30일까지

광주 광산구가 특색 넘치는 명소, 문화 등 지역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리기 위한 홍보 영상 공모전을 연다.

공모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며, 주제와 형식 제한은 없다.

광산에 대한 흥미와 공감을 자아낼 수 있는 볼거리·즐거거리·특색길(거리) 등 모든 분야를 소재로 순수 창작한 무직비디오, 패러디, 감성광고 등 영상물을 모집한다. 영상 분량은 3분 이내로 제작해야 한다. 광산구를 사랑하고,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지역·연령 제한 없이 개인 또는 팀(3인 이하)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응모는 6월 30일까지 온라인 폼 형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메일(0605kang@korea.kr)로 창작한 영상물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링크와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산구 누리집 및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산구는 작품 접수 후 독창성, 완성도, 활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 후 총 10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작품에 대해선 대상(1편) 300만 원, 최우수상(1편) 150만 원, 우수상(1편) 100만 원, 장려상(2편) 각 50만 원,佳作(5편) 각 10만 원 등 총 7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최종 당선작은 7월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절판 판매중

이방인

문이당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

문이당 | 15,000원